

2018년 업무계획

---

# 교육이 희망이 되는 사회

---

2018. 1

교 육 부



## 목 차



I . 2017년 성과와 평가 .....	1
II . 2018년 업무추진 여건 .....	3
III . 2018년 업무추진방향 .....	4
1. 기본방향 .....	4
2. 연말 이루고자 하는 모습 .....	5
IV . 주요업무 추진계획 .....	6
1. [혁신] 창의적인 인재 양성을 위해 학교를 혁신하겠습니다 .....	7
2. [미래] 고등교육의 질을 높여 미래 변화를 선도하겠습니다 .....	12
3. [도전] 지속적인 성장과 도전을 지원하는 평생직업교육을 만들겠습니다 .....	19
4. [책임] 모든 아이의 교육을 책임지겠습니다 .....	26
5. [소통] 현장의 자율성을 지원하고 소통하는 교육을 만들겠습니다 ....	36
[붙임] 2018년,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.....	40

## I. 2017년 성과와 평가

### 2017년 성과

#### □ 교육비 투자를 확대하여 국민 부담 경감

- (유아교육 지원)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금을 전액 국고로 확보(20,586억원)하는 등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
- (초중등 취약계층 학비지원) 중위소득 50% 이하 가구에 지원되는 교육급여 대폭 인상('18~) 결정, 저소득층 사각지대 지속 발굴
- (대학생 부담 경감) 반값 등록금 수혜 대상 확대를 위한 예산 증액 확보(약 500억원) 및 '18년도부터 국공립대 입학금 폐지 결정('17.8)  
- '17.2학기에 약 2,500명 규모의 공공기숙사를 개관하는 등 주거부담 완화

#### □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과 고른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노력 지속

- (학생 안전 강화) 학생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지진에 따라 연기된 수능을 안정적으로 시행하고, 안전한 학교생활 여건과 교육환경 조성\*  
\* 「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대책」 마련('17.12) 등
- (교육격차 해소)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강화 및 다문화·탈북·학업중단 학생 등 취약계층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  
※ 「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」 수립('17.12) 등

#### □ 새로운 교육 비전을 바탕으로 교육 전반의 혁신방안 마련

- (입시중심 교육 완화) 고입 동시 실시, 고교학점제 도입 방안을 발표('17.11)하여 경쟁중심교육 완화를 위한 교육 패러다임 전환 계기 마련
- (교실수업 개선 지원) 자유학기를 두 학기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유학년제 도입(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, '17.11)으로, 참여중심 수업 기반 확대
- (자율적 대학 경쟁력 강화 지원) 구조개혁평가를 '대학기본역량진단'으로 개선하고, 상향식 방식의 '재정지원사업 개편방안' 시안 마련('17.12)

- (대학 학사제도 개선) 융합전공, 유연학기제 도입 등 학사 운영의 유연성 및 자율성 확대(고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, '17)
- (평생교육 혁신) 한국형 나노디그리 시범운영 계획 수립('17.11), 평생 교육 바우처 등 다양한 평생교육 정책 신설

□ 갈등을 초래한 정책은 바로잡고, 현장과 협력·소통하여 정책 추진

- (국정 역사교과서 폐지) 폐지 확정('17.5) 후 검정교과서 적용('20.3~)에 관한 후속조치('17.7),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위한 진상조사위원회 운영
- (사학비리 척결 및 혁신 지원) 사학혁신위원회 및 실무추진단을 운영('17.9~)하여, 건전 사학 지원을 확대하고 사학비리에는 단호히 조치  
※ 사립대학 내 기금운용심의회 설치 의무화 등을 규정한 사립학교법 개정('17.11)
- (교육자치 강화) 교육자치정책협의회('17.8), 교육자치 로드맵('17.12) 등을 마련하여 교육자치 강화 및 현장과의 협력 기반 조성  
※ 특별교부금 비율 축소(4→3%)로 교육청 자율성 확대(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, '17.12)
- (국가교육회의 출범)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안하고,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한 교육현안을 공론화하기 위한 국가교육회의 구성('17.12)

## 아쉬운 점

- 보편적 복지 확대 기반을 마련하고, 교육복지 서비스 질을 제고하기 위한 획기적인 교육비 투자 확대 필요
- 문재인 정부 교육비전이 담긴 신규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, '내 삶을 바꾸는 교육정책의 변화'에 대한 국민 체감도 저조
- 대입제도 개편, 유아 방과 후 영어교육 등 국민적 관심사가 큰 사안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정책추진 미흡
- 학벌 중심 고용 관행 등 사회 전반적 풍토는 경쟁·입시 중심 교육을 탈피하기 위한 교육혁신 정책의 걸림돌로 작용

## II. 2018년 업무추진 여건

### □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교육체제로의 변화 요구

- 경쟁 중심의 산업사회 교육에서 벗어나, 문제해결력·창의성·공동체 의식을 갖춘 민주시민을 길러낼 수 있는 교육으로의 전환 절실
- 지속 가능한 혁신성장을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고, 지식 창출의 원천 역할을 하는 대학의 기능 강화 필요

### □ 저출산·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 선제적 대응

- 학비 부담을 완화하여 양육환경을 개선하고, 학생 한명 한명의 소질·적성을 발현시키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  
※ '22년까지 고교 학생 수 30% 감소 ('16년 175만명 → '22년 122만명)
- 급격히 변화하는 노동 시장에 대응하고, 전 국민의 전 생애에 걸친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질 높고 유연한 평생·직업교육 체제 마련 시급

### □ 양극화 해소 및 공정한 사회에 대한 요구 확산

- 경제·사회 양극화로 인해 교육비 지출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으며, 기술혁신 가속화로 양극화가 악화·고착화될 수 있다는 우려 심화\*  
\* 자녀 세대의 계층 상승 가능성을 낙관하는 비율이 '07년 65%에서 '17년 31%로 급락한 반면, 비관하는 비율은 18%에서 54%로 상승(통계청 사회조사)
- 학습을 통해 사회적 불평등이 해소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을 구현하고, 과정이 공정하고 기회가 균등한 교육 보장 필요

### □ 현장 자율성 및 교육 민주주의 강화 요구 확대

-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, 자치분권 강화 흐름 속에서 교육현장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교육개혁에 대한 요구 확대
- 성숙한 민주주의 가치가 교육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교육공동체의 운영 원리와 문화도 민주적으로 혁신 필요

### Ⅲ. 2018년 업무추진 방향

- ❖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의 비전과 국정과제 추진방향에 따른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일관되게 추진하여 **비전**을 현장에서 **구체화·가시화** 하는데 **초점**
- ❖ **교육정책 패러다임**의 변화방향에 대한 **대국민 공감대**를 넓히는 동시에, **현장 의견**을 밀도 있게 **반영**하는 교육정책 추진

#### ① 기본방향

##### □ 미래사회에 대비한 교육체제 혁신

- (초·중등교육) 입시·경쟁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**학생 개개인의 전인적 성장**을 지원하는 교육 실현
  -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역량을 키우고, 민주시민으로서 공동체 의식 함양 등을 함께 강조함으로써 새로운 시대의 인재 양성
- (고등교육) 양적 성장에 치우친 **고등교육의 질적 수준**을 높이고, 대학의 자율성·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학 체질 개선과 전략적 특성화 유도
- (평생·직업교육) 모든 국민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**평생학습** 체제를 마련하고, 직업교육 내실화 및 취·창업 지원 강화

##### □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 확대

- (보편적 복지기반 마련) 공교육비 지원 확대로 교육복지 기반을 확충하여 국가의 책무성을 높이고, 촘촘한 **교육안전망** 제공
- (안심할 수 있는 교육) 계층별·대상별 **교육복지 내실화**로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교육을 실현하고,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

##### □ 소통에 기반한 교육정책 추진

- (현장 소통) 온-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국민 소통을 확대하고, 시·도 교육청, 단위학교와의 협력체계 강화
- (관계부처 소통) 복합적, 중층적 사회·교육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**사회관계장관회의 활성화** 및 기능 강화

## 2 연말 이루고자 하는 모습

### 수업이 다양하고 재미있어집니다

#### 고교학점제 연구 · 선도학교

“나에게 꼭 맞는 교육과정”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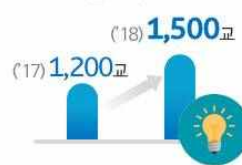
#### 자유학기제 확대 · 발전

“내가 참여하는 수업”



#### SW교육 연구 · 선도학교

“논리력 UP!”



#### 예술동아리 지원

“감성 UP!”



### 학교가 더 안전하고 쾌적해집니다

#### 내진보강 완성 시기



‘34년 완성

위험지역  
‘24년 완성  
타지역  
‘29년 완성

#### 위험요인 제거 및 노후시설 개선률(누적)



#### 초등 생존수영 대상학년 확대



### 교육비 부담이 줄어듭니다

#### 국공립유치원 취원을 확대



#### 저소득층학비 지원

교육급여 지원금



#### 반값등록금 수혜학생



#### 대학입학금



#### 대학기숙사 확대



### 대학의 경쟁력은 높아지고, 학생의 창업 기회는 늘어납니다

#### 국립대학 육성사업



#### 순수 기초연구 지원



#### 학생창업기업수



### 평생교육이 더 가까워집니다

#### 성인학습자 전담과정 중도탈락률



#### 평생교육바우처



#### 성인문해교육 수혜자(누적)





## IV. 주요업무 추진계획

### 비전

모든 아이가 행복한 학교, 모두의 성장이 열려 있는 사회

#### 혁신

창의적인 인재 양성을 위해 학교를 혁신하겠습니다.

- 경쟁·입시교육을 학생 성장 중심 교육으로 개선
-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 제고
- 교원 역량 강화 및 교육여건 개선

#### 미래

고등교육의 질을 높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겠습니다.

- 대학의 공공성과 경쟁력 제고
- 교육·연구역량 강화
- 산학협력 및 취·창업 역량 강화
- 대학의 자율적 발전 지원

#### 도전

지속적인 성장과 도전을 지원하는 평생직업교육을 만들겠습니다.

- 4차 산업혁명시대 평생직업교육 체제 정비
- 직업교육 내실화
- 누구나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평생교육
- 스스로 꿈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

#### 책임

모든 아이의 교육 기회를 책임지겠습니다.

- 전 생애에 걸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
-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
-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교육환경
- 국제사회와 재외국민에 대한 책임 강화

#### 소통

현장의 자율성을 지원하고 소통하는 교육을 만들겠습니다.

- 지방교육자치 내실화
- 잘못된 관행 개선 및 신뢰 회복
- 함께하는 교육거버넌스 구축
- 국민과의 소통 강화

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입니다



## 1 경쟁·입시교육을 학생 성장 중심 교육으로 바꾸겠습니다

### □ 학생 선택권 강화를 위한 고교학점제 도입 추진

- 고교학점제 도입에 대비하여 진로·학업수요를 반영한 선택형 교육 과정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학점제 연구·선도학교 운영('18~, 105교)

- ※ (연구학교) 학점제 관련 법·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우수 운영모델을 개발
- ※ (선도학교) 교육과정 다양화·혁신 경험을 지닌 학교들을 지원하여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모델 발굴·확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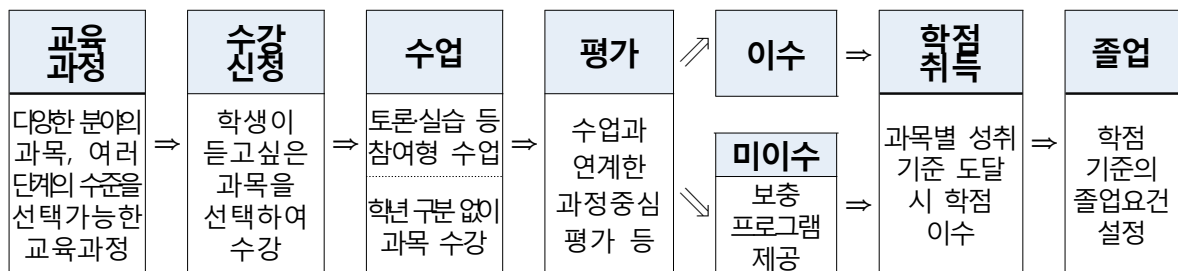
- 학점제형 학사제도(교육과정·평가·졸업제도 등) 도입을 위한 정책 연구\*를 실시('18~'19)하고, 이를 토대로 장·단기 제도개선 추진

- \* 교육과정, 평가 등 학점제형 학사제도 도입방안, 단위학교 지원에 필요한 인프라 소요 파악, 중장기 교원제도 개선방향 도출 등을 중점 검토

#### < 참고. 고교학점제 개념 및 모형 >

- ❖ 고교학점제 :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·이수하고,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할 경우 졸업을 인정받는 교육과정 이수·운영제도

- ❖ 학점제형 학사제도 운영 모형 예시(최종 완성 모형)



- 연구학교 운영 및 정책연구 결과를 토대로 학점제 도입을 위한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하고, 충분한 공론화를 통해 세부 실행방안 확정

- 제도 도입 범위·내용·일정 등을 종합 검토·제시 후, 현장의견 수렴 및 국가교육회의 논의 등 실시

- ※ 분야별 정책연구 추진('18~'19) →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종합 추진계획 마련('20) → 제도 개선 추진('21~) → 고교학점제 도입('22~, 예정)

## □ 중학교 자유학기제 확대·발전

- 학생중심 수업 및 과정중심 평가 활성화를 위해 전체 중학교(3,209교)에서 자유학기제를 운영하고, 희망학교(1,470교 예정)는 자유학년제 운영
- 학생중심 수업, 과정중심 평가 등 자유학기의 경험이 일반학기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자유학기(자유학년)-일반학기 연계 운영 확대
  - ※ 자유학기(학년)-일반학기 연계 운영학교 : ('16) 80교 → ('17) 406교 → ('18) 516교(예정)
  - ※ 지역 간·학교 간 격차 해소를 위해 양질의 체험 프로그램 제공 및 교원 역량 강화 등 자유학기 운영 내실화

## □ 고교 서열화 해소를 위한 고교체제 개편

- '19학년도부터 고교 입시를 동시에 실시하고, 고입 과정을 집중 모니터링하여 개선된 고입 제도 안착 지원
- 고교체제 관련 정책연구를 실시하고, 국가교육회의를 통해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

## □ 새 정부 교육혁신과 연계한 학생 성장 중심 교육개혁 방안 마련

- 미래사회에 대비한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고, 초·중등 교육혁신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단순하고 공정한 중장기 대입제도 개편(~'18.8)
  - 고교체제 개편, 고교학점제, 대입제도 등을 포괄적으로 검토하고, 대입정책포럼·국가교육회의 등을 통한 숙의과정을 거쳐 확정

## □ 대입전형 단순화 및 예측가능성 제고

- 사교육 유발 우려가 큰 논술 및 교과특기자전형의 단계적 축소·폐지를 유도하고, 수능과 학생부 위주로 복잡한 대입전형 단순화
  - ※ 논술/특기자 전형 : ('17학년도) 14,681명/7,253명 → ('18학년도) 13,120명/6,353명
- 복잡한 대입전형 명칭을 표준화\*('18.8)하여 학생·학부모 혼란 완화
  - \* 전형명에 주 전형요소가 포함되도록 표준화 추진 (00인재전형→학생부교과(00인재))
- 대입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의 대입정책 발표시점을 학생의 대학 입학년도 3년 6개월 전(중3 8월)으로 법제화(고등교육법 개정)

## 2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키우겠습니다

### □ 4차 산업혁명 사회에 필요한 역량 강화

- (창의융합 사고) 문·이과 구분 없이 모든 고1 학생이 '공통과목'\*을 배우도록 하여 통합적·융합적 사고력과 다양한 기초소양 함양('18~)
  - \* 공통과목: 국어, 수학, 영어, 한국사, 통합사회, 통합과학, 과학탐구실험
- 융합적 사고력과 실생활 문제해결력을 배양하는 STEAM교육 지원 확대
  - ※ 연구·선도학교: ('17) 57교 → ('18) 100교 / 교수학습자료 개발: ('17) 55종 → ('18) 75종
- (논리적 사고) 중학교 SW 교육을 필수화('18~)하고, 학교 중심 SW 교육 활성화를 지원\*하여 디지털 환경에 맞는 컴퓨팅사고력 제고
  - \* 연구·선도학교 확대('17. 1,200교→'18. 1,500교) 및 SW교육 지원(체험) 센터 구축·운영('18)
- 초등학교 SW교육 필수화('19)에 대비하여, 교원 연수 실시(~'18. 6만명) 및 학교 SW교육을 선도할 수 있는 핵심교원 양성('18. 2,500명)
- (도전정신) 교육과정 연계 창업체험 교육모델 개발\*, 교사연구회 지원(20개)을 통해 창업교육 기반을 조성하고 학생들의 도전정신 함양
  - \* 진로교육집중학년·학기제 연구·선도학교('18. 100개교)와 연계하여 지원
- 기업가 정신 함양을 위해 청소년 기업가체험 프로그램(YEEP)\* 운영 학교('17. 600교 → '18. 1,000교) 및 중앙·지역 창업체험센터\*\* 지원 확대
  - \* 각종 학교 내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온·오프라인 융합형 진로체험 프로그램
  - \*\* 지역 사회 스타트업 인프라를 활용하여 창업체험교육 운영 지원('17. 6개 → '18. 11개)

### □ 문화·예술·체육교육 및 올림픽 활용 교육 활성화

- (문화·예술·체육교육) 학교예술교육 내실화를 위해 예술중점학교와 학생예술동아리를 확대\*하고, 학교예술교육 중앙지원단\*\* 운영
  - \* ('17) 예술중점학교 16교 30학급 → ('18) 29교 45학급 / ('17) 예술동아리 980교 → ('18) 미술동아리 신규 지원, 총 1,050교
- \*\* 예술교과연구회 컨설팅, 관리자 및 교사연수, 학교예술교육포털 운영('17~) 등

- 지역 및 시설여건 등을 고려하여 **초등 생존수영교육을 6학년까지 확대**하고 '20년까지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 운영

※ ('17) 3~5학년 → ('18) 3~6학년 → ('19) 2~6학년 → ('20) 1~6학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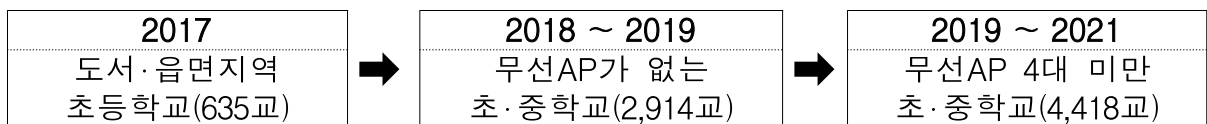
- (평창동계올림픽 활용 교육) 학생·교사의 올림픽·패럴림픽에 대한 관심과 참여 유도를 위해 교육웹포털 운영
- 올림픽 정신과 평화의 가치를 배우는 **계기교육**을 실시하고, 체육 분야 진로·직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**체험학습 지원**(~'18.3)

## □ 미래형 첨단 교육환경 구축

- (미래형 교육환경 조성) 디지털기술(VR·AR)을 활용한 실감형 디지털 교과서\* 개발·보급 및 학교 무선인프라 확대\*\*

\* 초등 3~6학년 사회·과학 디지털교과서에 가상·증강현실 콘텐츠(100종) 도입(~'18)

\*\* '21년까지 인터넷 가능 교실 학교당 최대 4실 구축



- (맞춤형 학습 분석) 학생의 학습활동 데이터를 수집·분석하여 맞춤형 학습 처방을 제공하는 '**지능형 학습분석 플랫폼**' 개발\*

\* ('18) 학습자원지도·수집·분석 및 1단계 플랫폼 구축 → ('19) 2단계 적응형 플랫폼 구축 → ('20) AI 기반 플랫폼 구축

- (교육용 콘텐츠 공유·확산) 공공·민간·개인이 참여하여 유·무료 교육용 콘텐츠를 개발·공유·확산하는 '**교육용 오픈마켓**' 구축('18)

\* 교육부는 오픈마켓을 구축·관리하고 공공·민간·개인은 콘텐츠를 생산하여 플랫폼에 등록하고 유통하며 활용



### 3 교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

#### □ 교육혁신의 주체로서 교원 역량 강화

- 초·중등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예비교원의 수업·학생 소통 역량 등을 제고하고 미래교육을 선도할 수 있도록 교·사대 교육과정 개편(~'18.하)

※ (교사의 역할) 과목중심, 지식전달자 → 범교과 융·복합 역량, 문제해결 조력자

- 수업탐구 교사공동체\* 지원 등 자발적 수업개선 문화를 조성하고, 융합 수업, 질문·토론식 수업, 역량 제고를 위한 다양한 연수\*\* 지원

\* 2,033개 교사동아리를 대상으로 3백만원씩 지원 예정('18)

\*\* SW교육, STEAM교육, 과정중심 평가 연수 등 31개 연수과정 지원('18, 170억원)

#### □ 중장기 교원제도 개편 등 선진국 수준의 교육여건 확보

- 창의융합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여건 개선 및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인 교원 수급을 위해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 수립\*

\* 정책연구 및 범정부 TF 회의 등 협의 → 수급 계획 확정('18.상)

- 도서벽지 근무환경 개선 등 도·농간 초등 교원수급 격차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

※ 교대 지역가산점 확대(현행 1차 시험 → 2차 시험까지 가산점 반영) 및 임용시험 지원자 미달지역에 대한 추가 임용시험 실시근거 마련('18.상)

- 교원의 행정업무를 적정화할 수 있도록 시·도별 교원 행정업무 경감 우수사례를 발굴·확산하고, 교무행정인력의 역량 강화\* 지원

\* 교무행정인력 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 지원 : ('17) 1.8억 → ('18) 5.5억

### 1 대학별 특성에 맞게 공공성과 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

#### □ 국립대학 육성을 통한 고등교육 공공성 및 경쟁력 제고

- 국립대학혁신지원(PoINT)사업\*을 전체 국립대학을 대상으로 확대·개편('18.상)하여 국립대학의 강점분야 경쟁력 제고 및 공적 역할\*\* 강화

\* ('17) 210억, 국립대학 18개교 지원 → ('18) 800억, 전체 국립대학 39개교 지원

\*\* 고등교육 기회 제공, 기초보호학문 육성, 지역사회 발전 기여 등

- 대학 간 기능별·분야별 자율적 연계 협력 추진을 위한 자원공동활용, 공동교육과정 운영, 융합연구 등 활성화 지원

- 국립대학의 운영 자율성 제고 및 기능 강화를 위해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규제 개선 사항을 선제적으로 발굴·추진

※ 정부-국립대학 합동 정책연구 실시('18.상~)

#### □ 국가균형발전의 허브로서 지방대학 지원 강화

- 지역인재 양성의 핵심주체인 지방대와 지자체의 협력을 강화하도록 지방대학-지자체-공공기관 클러스터 시범 사업('18.1~, 5개 내외 사업단(총50억))

※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에 지방대학-지자체-공공기관 연계·협력 유형 신설





- 고등교육 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 강소대학 육성전략을 마련('18.12)하고 대학별 강점 분야 중심으로 집중 지원 강화
- 지자체의 대학과의 협력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시·도 합동평가 지표 개선\* 및 인센티브 연계 추진

\* (기존) 수도권 지역은 대학과 협력정도 평가 미실시, 인센티브 無 → (개선) 전체 실시, 인센티브 有

## □ 교육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건전사학 육성

- 사학 운영의 건전성 및 학교 정상화를 지원하고 사학발전을 위한 5대 중점과제\*를 추진하기 위해 사학혁신위원회('17.12.8출범) 본격 운영

\* 사학발전 5대 중점과제 : ① 건전한 사학 지원 및 조성, ② 법인 및 대학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, ③ 학사 운영의 내실화 추진, ④ 관리자 및 친인척 측근 비리 및 채용 비리 방지, ⑤ 회계 관리의 투명성 확보 등

- 중·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시각으로 사학의 근본적인 체질개선 및 지속적인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제도개선 필요사항 발굴·개선('18)

※ 국민제안센터 제안 등 유형화·분석 → 사학혁신위원회 등을 통한 제도개선 필요사항 발굴('18~)

---

## ② 교육·연구역량을 강화하여 대학다운 대학을 만들겠습니다

---

### □ 대학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기초·전공 교육 강화

- (기초교양교육) 기초교양 강화를 위해 대학별 여건·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컨설팅을 확대('17. 50개교 → '18. 70개교)하고, 인문·기초과학 등 다양한 분야를 연계·융합한 과목 도입 확대

- (전공교육) 자기주도형 프로젝트 교과 등 혁신적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\* 및 4C\*\* 능력 배양

\* 빅데이터 분석, 인공지능, 사물인터넷, 신산업 비즈니스 스토리 분석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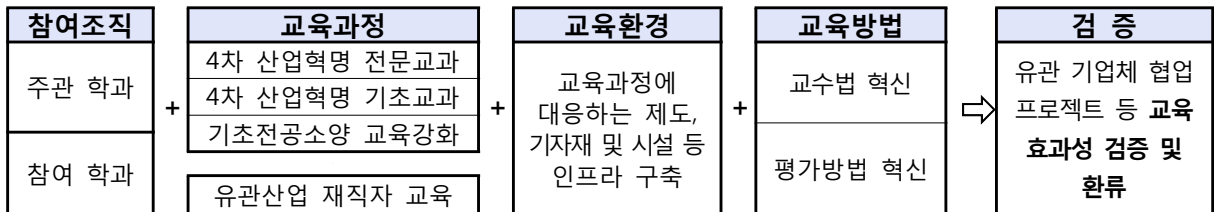
\*\* 비판적 사고력(Critical Thinking), 소통(Communication), 창의력(Creativity), 협업(Collaboration)

- 온·오프라인 연계교육, 프로젝트 기반 수업 등 교수법 혁신 및 시설·기자재·강의실 등 물리적 환경 개선을 지원

※ 자기진단 평가, 토론 평가 등 질적 평가 중심 학생평가체제 개선, 교원 업적평가 내 교수법 혁신실적 반영 등 제도적 변화 동시 추진

※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 신규 지정('18, 10교 100억원(교당 10억원))

#### <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 운영 모델(안) >



#### □ 대학의 지식창출 활성화를 위한 연구역량 제고

- (인문사회분야)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지원과제\*를 연계하여 **최장 12년까지** 지원하고 우수 인문학 연구소에 대한 지원을 강화\*\*

\* 학문후속세대(2년), 신진연구자지원(3년), 중견연구자지원(7년)

\*\* 인문한국사업(HK<sup>+</sup>) : 연구소 신규 선정(5개) 및 기존 우수 성과 연구소 추가 지원(9개)

#### < 인문한국플러스(HK<sup>+</sup>) 사업개요 >

- ❖ (사업내용) HK교수(정년트랙) 임용 등 연구 인프라 구축 및 지역인문학 센터를 통한 연구 성과의 사회적 확산
  - ❖ (대상/기간) 대학부설 인문학 연구소\*/ 7년(3+4년) 지원
- \* (1유형) HK사업 신규 참여 연구소, (2유형) HK사업 완료 연구소 중 우수연구소

- (이공분야) 중장기 대학기초연구 지원방안(5개년)을 수립하고, 순수 기초연구예산 확대를 추진하여 이공분야 연구역량 제고

- 실패 가능성을 전제한 창의·도전연구('18, 300과제), 보호·소외연구('18, 36과제) 지원을 확대하여 연구의 다양성 확대

※ 이공학분야 기초연구예산 : ('17) 3,875억 → ('18) 4,525억

- 순수기초연구는 교육부, 목적기초연구는 과기부로 역할분담 및 체계화하여 연구자 편의성 제고

※ 순수기초연구(교육부주관)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제고하고, 목적기초연구(과기부)와의 성과 연계성 강화

### 3 산학협력을 활성화하고 대학생 취·창업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

#### □ 부처 간 칸막이를 넘는 종합적 산학협력 정책 추진

- (위원회 신설) 국무총리 산하에 민관합동 국가산학협력위원회를 신설·운영하여 부처 간 칸막이를 넘는 연계·협력 체제 구축('18.6~)

※ 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」 개정·공포('17.11.28) 및 시행('18.5.29) 예정, 동법 시행령 개정('18.상)

##### < 국가산학협력위원회 개요 >

- ❖ (역할)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주요 정책·계획을 조정하고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심의
- ❖ (구성) 위원장 : 국무총리, 민간위원 공동 (간사위원 : 교육부 장관)
  - 위원 : 산학협력 관련부처(교육부, 산자부, 과기정통부 등) 및 민간전문가

- (중장기계획 수립)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해 범부처 '산업교육 및 산학협력 5개년 기본계획('19~'23)' 수립 추진('18.하)

※ 산학협력 발전 방향 및 인력양성 계획, 산업교육 다양화 및 협력 체제 지원 등

#### □ 산업체 눈높이에 맞춘 산학협력 체제 구축

- (산업계관점 대학평가) 산업계가 분야별 직무수행에 필요한 핵심 직무역량 등을 제시·평가하여 대학의 자율적 교육과정 개선 유도

※ 4주기 산업계 관점 대학평가 시행방안 관련 정책연구(~'18.2)결과를 바탕으로 평가대상 분야 확대 및 대학 컨설팅 개선방안 수립·시행('18.5~)

- (대학 내 산학협력단지 조성) 대학 내 유허부지·시설을 활용하여 대학과 기업·연구소 간 상시적 산학협력 인프라 조성 지원

※ 기본계획 수립('18.하) → 시범 선정('19.상)

##### < 대학 내 산업단지 개념 및 국내외 사례 >

- ❖ (개념) 대학이 소유한 유허 교사나 교지를 활용하여 연구개발, 생산, 기업지원 서비스 등 산학협력 활동을 하는 경제·지리적 협력 공간
- ❖ (필요성) 기업·연구소를 대학 내 유치하여 대학중심 쌍방향 밀착형 산학협력 활성화 촉진
- ❖ (국내외 사례) 한양대ERICA, 영국 UEZ 산학연관협력시스템, 중국 청화대 연구단지 등

- (창의적 자산 실용화) 기술혁신 및 신산업 창출 유도를 위해 대학 간 공동기술개발 및 기술사업화 과정에서의 기업 참여 활성화

※ 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 사업개편(BRIDGE+) 추진('18.5~,'18개교 교당 평균 7억원 예정)

< BRIDGE+ 추진방향 >

- ❖ (융·복합 실용화) 산업 동향 및 4차 산업혁명 관련 유망기술 중심 대학 간 기술자산 조합 활성화
- ❖ (수요 기반 기술이전) 기업 수요를 축대로 창의적 자산 예측·발굴·결합 과정에서 대학 간 협력 촉진
- ❖ (전담조직 강화) CTO배치 등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, 전담인력 보직관리 및 실적중심 보상 제공 등

## □ 대학 취·창업 활성화를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

- (취업활성화) 학생이 전공과목(1~2년) 이수 후 기업에 조기채용된 뒤 직무교육(1~2년)을 받는 '조기취업형(혼합형) 계약학과' 운영 근거 마련

※ 「계약학과 설치·운영 규정」(교육부 고시) 제정('18.상)

< 혼합형 계약학과 운영 (예시) >

채용조건형(1~2년)	채용 ⇒	재교육형(1~2년)
전공 관련 기본교육과정		심화 직무교육과정
학 생		학생 + 근로자

- 기업이 '사회맞춤형 교육과정'('18, 64개교) 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운영비, 기자재비 등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

※ 「산학협력법」 개정('17.11)으로 사회맞춤형학과 참여 기업체에 세제혜택 지원

- (창업활성화) 실전형 창업교육으로의 전환 등 창업교육 활성화를 위해 제2차 대학창업교육 5개년 계획 수립을 추진('18.3~)

- (대학원 기술창업) 대학원 중심 '기술' 창업 활성화를 위해 대학원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신규 운영(5개교, 8.2억)

※ 프로그램 예시 : (입학) 창업계획서 등 심사 → (교육) 창업 및 기술교육, 실습 활동, 멘토링 등 → (졸업) 투자 유치 및 창업 실행 등

- (창업펀드 조성) 대학 구성원의 사업화·창업 촉진을 위해 초기 창업 비용을 지원하는 대학창업펀드 확대('17. 120억원 → '18. 150억원)

- (희망사다리 장학금) 중소기업 취업 및 창업 희망 학생(전문대 2학년, 4년제 3학년 이상)에게 학자금 전액 및 학기당 장려금(200만원) 지원('18, 286억)

※ 장학생의 취업 또는 창업 의무 유지 기간 : 장학금 수령학기 × 6개월 간

#### 4 대학의 자율적 발전을 지원하겠습니다

##### □ 대학 기본역량 진단을 통한 대학의 자율적 발전 지원

- 대학의 기본역량 향상과 전략적 특성화를 위해 기존 양적조정 중심의 획일적 대학 구조개혁 평가를 「대학 기본역량 진단」으로 개선하여 시행('18)

##### < 대학 기본역량 진단 개요 >

- ❖ (대상) 일반대학, 산업대학, 전문대학 (진단 제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제외)
- ❖ (방식) 대학이 갖추어야 할 기본 요소를 종합적으로 진단
- ❖ (지표 개선사항) 대학운영의 민주성·책임성 강화를 위해 '구성원 참여·소통', '법인' 지표 신설 및 교원 일자리 수준 악화 방지를 위해 보수수준 하한값 설정 등 개선

- '18년 진단 결과, 일정 수준 이상의 대학은 스스로 발전할 수 있도록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(권역별 균형 고려)하여 적극 지원
- 다만, 미흡한 대학은 재정지원을 제한하여 과감한 구조조정 유도



- 대학 기본역량 진단 및 후속지원의 안정적 추진과 전문적 진단·지원 체계 마련을 위한 법률 제정 추진('18.하~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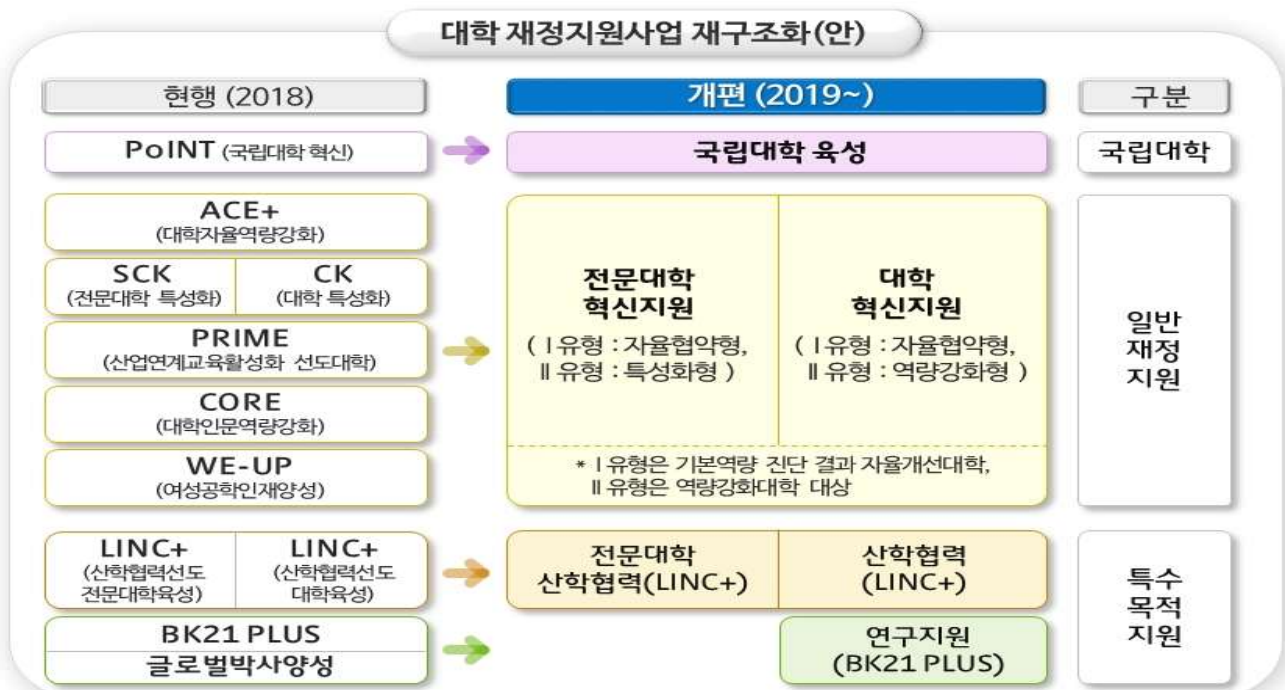
##### □ 대학 재정지원사업 개편을 통한 대학 자율성 및 투자 효과성 제고

- 대학 재정지원사업 개편 방안을 마련('18.2)하여 기존의 복잡한 재정 지원사업 구조를 일반재정지원사업과 특수목적지원사업으로 단순화
- (일반재정지원) 기본역량진단에 따른 자율개선대학 및 일부 역량강화 대학을 지원하기 위해 「대학혁신지원사업」 기본계획 수립('18.하) 및 추진('19~)

### < 대학혁신지원사업(안) >

- ❖ (사업기간) '19~'21년(3년간)
- ❖ (지원대상) 대학 기본역량진단 결과, 자율개선대학 및 일부 역량강화대학에 지원
- ❖ (지원규모) 교당 30~90억 내외 (단, 예산규모는 추후 확정)
- ❖ (지원내용)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른 기본역량 강화를 지원, 사업내용 및 집행의 자율성 보장

- (특수목적지원) 대학의 핵심 기능인 산학협력(LINC), 연구(BK)를 중심으로 사업 통폐합 및 구조 단순화



- 재정지원사업 간 정합성 제고를 위해 대학이 수립한 '중장기 발전 계획'을 각 사업 평가 시 공동 활용
- 지원 방식을 목표에서 성과관리까지 대학이 자율적으로 설계하는 상향식(bottom-up)으로 전환

### □ 대학의 자율발전을 촉진하는 규제 혁신

- 국내 대학의 교육과정 해외 진출\*과 원격수업의 기준 설정 등을 위한 관련법령 정비(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, '18.상)
  - \* 국내대학 교육과정을 외국대학에 수출하고, 교육과정 이수할 경우 국내학위 수여
- 학교유휴재산의 수익창출을 허용\*하여 수익구조를 다변화하고 대학 기술 지주회사가 자회사 설립 시 지분비율\*\*을 완화하여 대학의 기술투자 활성화
  - \* 확보율을 초과하는 유휴교육용 재산을 수익용으로 변경하여 그 수익을 교비회계로 전출할 수 있도록 개선(사립학교법 개정, '18.하)
  - \*\* 자회사 지분 비율 20% → 10%로 완화 (산학협력법 개정, '18.상)



### 3

## [도전] 지속적인 성장과 도전을 지원하는 평생직업교육을 만들겠습니다

### 1 미래변화에 대비하여 평생직업교육 체제를 정비하겠습니다

- 미래 직업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
- 생애 전단계에 걸친 체계적 국가인적자원 개발·활용을 위해 **범부처 직업교육 마스터플랜\***을 수립('18.7)하여 미래직업교육체계 구축
  - \* 교육부(직업교육), 고용부(직업훈련), 산업부·중기부(산업인력), 과기부(기술인력), 여가부(여성인력) 등의 관련 정책 포괄



- 실효성 있는 계획을 위해 산업계, 현장 관계자, 학계와 관계부처 등이 참여하는 **민관합동 추진체계**(미래직업교육추진단)를 구성하고 **국민 제안 아이디어**(온교육 등)를 반영

#### 기본방향(안)

- 1 유연한 평생직업 교육체계 구축**
  - 생애 진로지도·진로정보 제공, 교육훈련 산업 육성
  - 평생직업교육 계좌제 / 바우처 제도 / 나노디그리 운영
- 2 모두에게 열려 있는 역량개발 기회 제공**
  - 다문화학생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
  - 일과 학습의 통합, MOOC 등을 통한 교육기회 확대
- 3 미래형 창의·융합 인재 양성**
  - 기초 역량 및 문제 해결력 등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
  - 교수 학습방법 혁신, 일자리·인력수급 예측 시스템 고도화
- 4 학교중심에서 상호협력적 직업교육으로 이동**
  - '학교 - 기업 - 정부' 간 직업교육 협력 플랫폼 구축
  - School-to-work체제 활성화 및 Work-to-school체제 구축
- 5 직업교육 인프라 확충을 통한 국가책임 강화**
  - 범부처 직업교육 정책 결정 시스템(역할 재정립 등)
  - 국가 자격체계 개편, 재정지원 확대 및 세제 혜택 강화

- **개인과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 수립**
-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맞춤형 평생학습 사회 실현을 위한 **제4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('18~'22)** 수립

※ 일정(안) : 시안수립('18.1) → 권역별 의견수렴('18.2) → 확정발표('18.3)

< 주요내용(안) >

- ❖ (전국민 평생학습권 보장) 평생학습이력관리, 인생 전환기 진로설계 컨설팅, 문해 및 학력보완의 기회 확대, 평생학습 바우처 제공, 장애인 맞춤형 평생교육 제공 강화
- ❖ (온라인, 산업맞춤형 평생교육) 4차 산업혁명 대비 K-MOOC 운영 개선, 한국형 나노디그리 시범운영, 고등교육기관의 성인친화적 교육 제공 강화
- ❖ (지역단위 평생학습 역량 강화) 평생학습도시 성과평가, 평생교육사 전문성 제고, 자발적 학습모임 육성 지원

## 2 직업교육 내실화로 현장이 요구하는 인재를 키우겠습니다

- **현장성 높고 안전한 중등 직업교육 제공**
- 스스로 설정한 비전에 따라 교육과정 혁신 등 학교 운영에 대한 개선 의지가 있는 직업계고를 지원\*하여 **자발적 혁신** 유도
    - \* 매력적인 직업계고 육성사업(3년 지원) : 직업계고 150교에 총 210억원('18)
  - 학생 및 직업 현장의 수요에 맞는 다양한 융합형 교육과정 운영 활성화를 위해 **직업계고 학점제 도입 준비\***
    - \* '22년 전체 직업계고로의 확산을 위해 연구학교('18~'20, 23교) 운영, 인프라 분석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 추진('18~)
  - **신(新)산업 분야\*** 등 **마이스터고** 지정 확대 및 학과·교육과정 개편,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개선을 통해 미래 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인력 양성
    - \* AI, 빅데이터, AR·VR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분야
    - ※ 기존 마이스터고 컨설팅·성과관리 및 제4차 산업혁명 분야로 학과 개편 지원
  - 산업현장 직무(NCS\*)에 기반한 직업교육과정의 안정적인 정착('18~)을 위해 체계적인 교원 연수 및 교재개발 등 지원
    - \* NCS(국가직무능력표준,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) : 산업현장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·기술·소양 등을 국가가 산업부문별·수준별로 체계화한 기준

○ **학습중심 현장실습 적용으로 모든 실습생의 학습권과 안전 보장**

< 현장실습 개선방안 적용('18~) >

구분	(기존) 근로중심 현장실습	(개선) 학습중심 현장실습
운영 형태	조기 취업 형태로 운영	취업 준비과정으로 운영
신분	학생 및 근로자 혼용	학생
안전관리	취업률 제고를 위해 업체의 안전성 검증 미흡	안전이 확보된 업체
교육과정연계	자율	실무과목과 연계한 OJT

- 학습중심 현장실습 안착을 위해 **우수 현장실습 기업 후보군**을 제공(고용부·중기부 협력)하고 기업참여 **인센티브 방안** 마련('18.상)
- 현장실습이 취업률 제고 수단으로만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취업률 중심의 학교평가 및 예산지원 체제를 근본적으로 개선

※ 시도교육청 평가 개선(취업률 : 정량평가 → 정성평가 변경 검토) 등

□ **고졸 취업·고용 활성화 및 취업 후 경력개발 지원**

- 기간·전략·뿌리산업 등 **고졸인력 부족 분야**의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에게 **취업연계 장학금** 지원사업 신설 추진('18)
- 시·도별 **취업지원센터\*** 운영 및 **일자리 정보제공\*\*** 등을 통해 고졸 취업지원을 강화하고 고졸 인재의 **국비유학 기회 확대**

\* 시·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운영 법적근거(직업교육훈련촉진법) 마련('18.상)

\*\* 고용센터와 워크넷(일자리 정보망)을 통한 고졸적합 일자리 및 취업 희망자 정보 제공 등 맞춤형 서비스 강화

- **민간부문 고졸채용 확대**를 위해 청년 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**장려금** 및 **세액공제\*** 혜택 제공('18~)

\* (세액공제) 중소기업 사회보험 신규 가입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신설, 특성화고 등 졸업자 병역 후 복직 기업 세액공제 확대(10%→30%) 등

- 군 특기병 선발 시 직업계고 졸업생을 우대하고, 전공-군대병과를 연계하여 병역기간 중 경력개발 지원

#### □ 직업교육 거점 기관으로서 전문대 육성

- 일반재정지원과 산학협력 중심의 목적성 지원으로 전문대학 재정 지원사업 확대·개편('18. 기본계획 수립→'19.시행)
- 우수한 전문대 학생 대상 장학금 신설을 추진하고 전문대 편입학 제한 규제를 개선\*하여 일반대와 전문대 간 균형발전 도모

\* 학사학위 취득자의 전문대 정원 외 편입학 허용(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, '18.하)

---

### ③ 누구나 언제든지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

---

#### □ 미래 핵심역량 개발을 위한 온라인 성인학습 생태계 구축

- 전문대학 등과 연계하여 직업 MOOC를 신규 개발\*하고, 인공지능·빅데이터·SW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K-MOOC 강좌 확대\*\*

\* 직업 MOOC 개발 : ('18) 10개 강좌 → ('19~) 매년 30개 내외

\*\* K-MOOC 강좌 : ('15) 27개 → ('16) 140개 → ('17) 323개 → ('18) 500개

- 정부·공공기관의 콘텐츠를 통합 제공하고, 민간에서 다양한 학습 콘텐츠를 개발·유통할 수 있도록 K-MOOC 플랫폼 개편\* 추진

\* (1단계 : '18~'19) KOCW 및 공공기관 콘텐츠 통합 방안 마련 및 초기 통합 → (2단계 : '20~) 플랫폼 개편을 통한 콘텐츠 유통시장 구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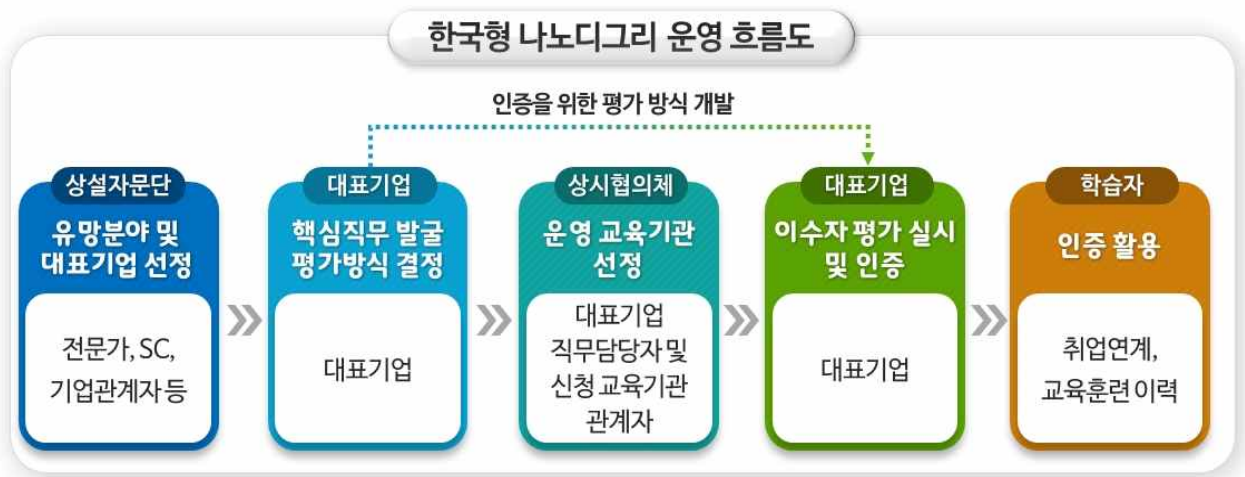
#### □ 4차 산업혁명 대비 직무능력프로그램 확대

- 대학생·재직자 등 대상으로 유망 분야 대표기업이 직무능력을 인증하여 교육의 현장성을 강화하는 한국형 나노디그리\* 시범 도입

\* 별도 명칭 공모(~'18.2) 및 시범운영('18. 10개 과정(15.5억원))

- 온라인 교육을 활용하여 시·공간적 접근성을 높이고 직업훈련기관 등과 연계하여 현장교육과 실습 병행 지원

※ 고용부·산업부 등과 연계하여 대표기업 지속 발굴 및 중기부·산업별협의체 중심으로 중소기업(재직자 교육) 활용 확대



## □ 학습자 중심 평생교육 기반 마련

- 일·학습을 병행하는 재직자·성인학습자 특성을 감안한 성인친화적 학사제도 도입·적용을 지원하여 대학의 평생교육 기능 강화

※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('18. 12개교 내외 113억원 지원)

### < 성인친화적 학사제도 예시 >

- ❖ (융합전공제) 기존 사회복지학, 의학, 보건학 등을 융합한 헬스케어 전공을 융합 전공으로 개설하여 36학점 이상 취득시 복수전공 학위 수여
- ❖ (학습경험 인정제) 재직경력을 20학점으로 인정받아 졸업이수 학점 감소
- ❖ (집중이수제) 집중강의·집중이수 방식 등 자유로운 교과운영을 통해 학위취득 부담 경감

- 성인 및 재직자 재교육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AI, IoT 등 4차 산업 혁명 대비 첨단과목 등에 대한 시간제등록제 활성화 방안 마련('18.하)

※ 시간제등록제 운영 현황('17) : 학습자 수 20,676명, 인정 학점 136,440점

- 지역단위 평생교육 내실화를 위해 **평생학습도시**를 **지속 확대\***하고, **평생학습도시 성과평가**를 도입\*\*하여 인센티브 및 컨설팅 제공

\* 평생학습도시 시·군·구(누적) : ('16) 143개 → ('17) 153개 → ('18) 160개

\*\* ('18) 성과평가 제도 계획 수립 → ('19) 성과평가 실시 및 사후 관리

- 각 부처 및 지자체의 평생교육 투자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시하기 위한 '**국가평생교육투자알리미**' 구축 추진

※ ('18) 구축 방안 정책연구 및 방안 마련 → ('19) 시스템 구축 및 시범운영

- **성인의 자발적 학습모임**을 지원하여 지역의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을 활성화

※ 시·도별 학습동아리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(평생학습박람회('18.10) 연계)

## □ 교육소외계층을 위한 맞춤형 평생교육 서비스 제공

- **저소득층**이 경제적 부담 없이 평생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**평생교육 바우처**를 신설하여 실질적 교육격차 해소('18.5~)

※ 평생교육 참여율('16) : (월소득 500만원 이상) 42.7% vs. (150만원 미만) 21.1%

### < 평생교육 바우처 운영 시안 >

- ❖ (지원조건) 소득수준 등 경제·사회적 여건에 따라 지원
  - \* 연간 최대 35만원 수준으로 5,000명 내외 지원
- ❖ (지원방식) 바우처 신청→대상자 선정→전자바우처 발급→희망 강좌 수강
- ❖ (활용분야) 저소득층 대상 지자체·대학 평생교육강좌, 나노디그리 이수비용 등

- 금융·정보·영어 등 생활문해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, EBS 문해교육 방송 운영 등을 통해 소외지역 및 소외계층의 문해교육 접근성 제고

- 성인 학습자의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위해 **방송중·고의 학사 운영을 유연화**(예: 수업연한 다양화 등)\*하고 다양한 학습 콘텐츠 제공\*\*

\* ('18) 수업연한 다양화, 학점제 등을 적용하는 연구학교 준비 → ('19) 2교 운영

\*\* 방송고 교육과정 콘텐츠 14종 추가개발('18)



#### 4 스스로 꿈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

##### □ 4차 산업혁명 대비 진로탐색 지원

- 미래 직업세계에 대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\*하고, 디지털 기술(VR, AR) 기반 가상 진로체험 콘텐츠 개발·운영('18.5종)
  - \* 커리어넷에 4차 산업혁명 진로정보 제공('17.12~), 진로가이드북 개발('18.하) 등
- 진로교육정보망 회원 통합\*('18.상) 운영으로 학생 개인의 진로 개발 포트폴리오를 누적 관리·분석할 수 있는 기반 구축
  - \* 진로정보망(커리어넷), 진로체험망(꿈길), 원격영상 진로멘토링, 청소년기업가 체험 프로그램
- 급격한 기술혁신 및 직업세계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**중장년층의 진로설계를 지원하는 '성인 진로 탄력성\* 강화 프로그램'** 개발 추진
  - \* 실직·직업전환 직업 환경 변화 등 생애에 걸친 진로 변화에 적응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
  - ※ ('18) 평생학습자 진로탄력성 강화 방안 연구 → ('19) 프로그램 개발·보급

##### □ 진로체험 격차 완화 및 질 제고

- 도서 벽지 등 소외지역의 진로체험을 지원\*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\*\*하여 계층 간 진로체험 격차 완화
  - \* 진로체험버스, 원격영상 진로멘토링 및 대학-도서벽지 진로캠프 등
  - \*\* 특수학교 진로체험버스 : ('17) 25교 → ('18) 50교  
다문화멘토와의 원격영상 진로멘토링 프로그램 : ('17) 67교 → ('18) 80교
- 취약계층 대학생의 진로개발 지원을 위해 해외연수·진로체험 등의 기회를 제공하는 **'파란사다리'** 사업 실시('18. 800명, 1인당 평균 350만원)
- 진로체험의 질을 높이기 위해 체험기관 인증제 개편\*을 추진하고, 지역 맞춤형 진로체험 프로그램 지속 운영
  - \* (현행)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제 → (개편) 진로체험 우수기관 인증제
  - ※ 진로체험 우수기관 인증제 개편 위한 정책연구 실시('18)

## ① 전 생애에 걸쳐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

### □ 출발선 평등 확보를 위한 유아기 교육지원 기반 마련

- 시·도교육청별 여건(국공립 분담률) 등을 고려, 국공립유치원을 신·증설하여 '22년까지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40%로 확대('17년 25%)
- 국·공립 유치원 설립 부담을 완화\*하여 단설유치원 확대를 추진하고, 초등학교 내 병설유치원 확대 동시 추진

\* 시도교육청의 유치원 부지 확보 부담을 줄이기 위한 「학교용지법」 개정 추진('18. 상)

- 모든 유아가 균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게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전액 국고로 지원\*

\* 어린이집 누리과정 국고지원 : ('17) 41.2% 8,600억원 → ('18) 100% 20,586억원

### □ 교육의 기회균등을 위한 초·중·고 무상교육 기반 확대

- 고등학교 무상교육 도입('20~)을 준비하기 위해 '고교 무상교육 도입 기본계획'을 수립('18.하)하고 법적근거\* 마련 추진

\* 「초·중등교육법(무상교육 근거)」, 「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」 개정('18.하~)

### □ 대학생 학비 및 주거부담 완화

- 대학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폐지(국공립 '18, 사립 ~'22)하고, 대입전형료 인하 유도를 위한 대입전형료 책정 기준 및 제도 개선안 마련('18.상)
- 중산층 이하 가정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소득분위별 단가를 인상하여 반값 등록금 수혜자 확대\*

\* 등록금 절반 이상을 지원받는 대상을 중위소득 120%까지 확대 ('17년 52만명 → '18년 60.7만명, 국가장학금 지원예산 약 500억원 추가 확보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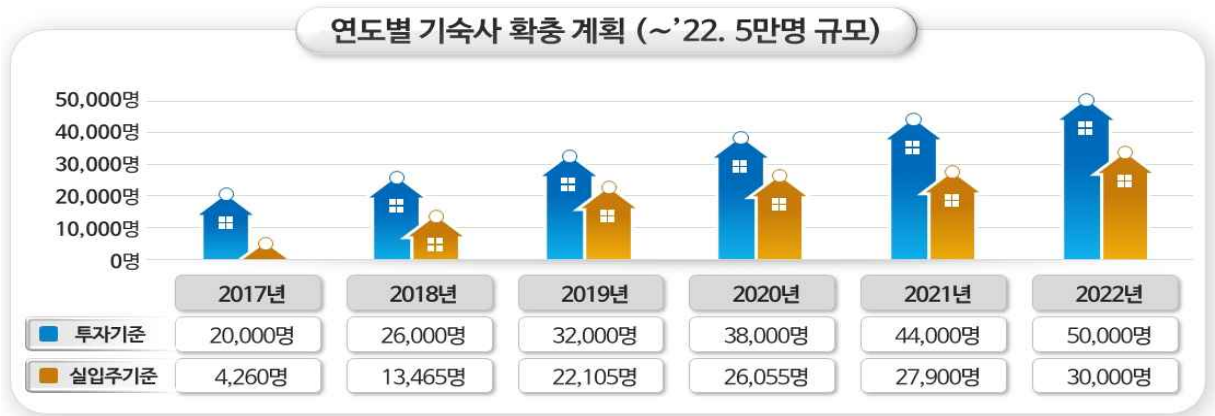
- 초·중등·대학 교육복지 연계성 강화를 위해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체계를 초·중등 교육급여 기준과 연계\*시키는 등 소득분위를 재구조화\*\*

- \* 교육급여 수급대상자 기준(중위소득 50%이하)과 일치하도록 소득분위 기준 조정
- \*\* 소득분위 중간값(5분위) 기준을 국민 가구소득 중위값(기준 중위소득 100%)과 일치

- 학자금 대출금리를 인하\*('18. 1학기, 2.25 → 2.20%)하고 일반상환학자금 생활비 대출한도 증액(연 200만원→300만원)

\* 약 131만명에게 연간 40억원 이자부담 경감 전망('18)

- 대학생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신규 기숙사 설립('18. 6,000명 규모) 추진 및 완공된 기숙사의 입주자 추가 모집('18. 9,205명)



## ② 교육의 희망사다리를 복원하겠습니다

### □ 한 아이도 놓치지 않도록 기초학력 보장

- (한글·수학 책임교육) 학부모의 선행학습 걱정을 없애는 초등 저학년 한글·수학 교육 내실화 추진
  - (한글) 학부모가 초등 한글 책임교육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한글 교육 내실화 방안을 추진하고 모니터링 및 지원 강화



- (수학) 선행학습 없이도 배움이 즐겁고, 학생의 학습 속도에 맞춘 기본에 충실한 수학교육으로 개선

### < 개선 방향 >

- ❖ 한글 선행학습이 필요 없는 교과서(초 1~2학년 교과서 글자 수 최소화)
- ❖ 기본에 충실한 교과서(정답률 70% 미만 문항 수정)
- ❖ 학생 개인의 학습 속도를 존중하는 교과서(스토리텔링 축소, 복습 기회 확대)
- ❖ 교과서 활용 지원(초등 교사 연수, 학부모 수학교실, 온라인 콘텐츠 개발)

○ (기초학력 보장 강화)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 및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진단도구를 보완하고 적용대상 확대

- 학습부진 조기 예방 및 학습결손 보충 강화를 위해 기초학력 진단-보정 프로그램\* 보완 및 적용 대상 확대(초3~중3→초1~고1)

\* 학습부진 원인진단과 조정 관리까지 지원하는 원스톱 통합 지원 시스템

- 학생 맞춤형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학교 안·밖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안전망 구축 추진

### < 기초학력 지원을 위한 종합 안전망 구축 >

- ❖ (교실) 학습부진학생 맞춤형 지원을 위한 모델 개발·확산
  - \* 학습부진학생 개별 맞춤형 지도를 위한 기초학력 보장 선도(시범)학교 운영('18. 30개)
- ❖ (학교)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교로 '두드림학교' 단계적 확산('18~)
  - \* 두드림학교('17. 초966, 중615, 고241교) : 담임·특수·상담·돌봄 교사 등이 협력 지원
- ❖ (학교 밖) 학교-교육청-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지원체제 구축·운영
  - \* 학습종합클리닉센터('17. 125개) : 학교역량으로 해결이 어려운 학생을 종합적으로 지원

○ (학업중단 학생 지원) 학업중단 숙려제 내실화 및 폐교·유휴시설 활용 민간위탁형 공립대안학교\* 설립 지원(~'20, 5교)

\* 개교 예정 : 대구 1교('18.3), 강원 1교('19.3), 경남 2교('20.3), 전남 1교('20.3)

- 학교 밖 학생의 학력 취득 및 학업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감이 인정한 학교밖 학습프로그램·학습경험에 대한 학력 인정 허용\*

\* 공통 운영 기준 마련 및 시·도별 「학력심의위원회」 운영 규정 개정, 7개 교육청 시범사업 운영 추진 등('18.상)

## □ 취약계층별 맞춤형 교육 복지 강화



### ○ (저소득층) 저소득층에 대한 실질적 교육기회 보장 확대

- 저소득층 가정의 유치원 학비부담 완화를 위해 저소득층 자녀에게 국·공립유치원 우선 입학 기회 확대('17. 3개 교육청 → '18. 전국 확대)

- 초등학생 학용품비 신규 지급, 중·고등학생 부교재비 지급 금액 인상 등 교육급여 대폭 인상\*

\* (초) 41,200원 → 116,000원 (중) 95,300원 → 162,000원 (고) 1,524,200원 → 1,592,400원

- 잠재력 있는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꿈사다리 장학금\* 도입('18~) 및 성적우수 고등학생 드림장학금 확대('17. 31.8억원 → '18. 39.5억원)

\* 중학교 1학년 학생 300명을 선정하여 중2부터 5년간 월30~40만원 내외 지원

### ○ (특수교육대상자)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통합유치원('17. 1개 → '22. 17개), 특수학교('18. 3개교)·학급('18. 250학급) 확충

- 특수교육교원을 확대('18. 1,173명 증원)하고, 특수교육대상자 진로 설계 지원 강화를 위한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('18~)

- 장애공감문화 조성을 위해 유·초·중·고 학생의 장애이해교육을 의무화하고(연2회), 특수교사-일반교사 통합교육 협력 모형\* 개발

\* 특수교사와 일반교사 통합교육 협력 강화 모델인 정다운학교 시범 운영('18. 17교)

- (다문화학생) 다문화 유치원을 확대\*하고 기존에 서울 중심으로 운영되던 대학생 '모국어 멘토링'을 전국으로 확대
  - \* 다문화유치원 확대 : ('17) 90개 → ('18) 100개 내외
- 다문화 중점학교\*(313교) 및 연구학교(신규, 10교)를 통해 교과 연계 다문화 교육을 실시하고, 교원 다문화교육 역량강화 연수 의무화('18~)
  - \* 모든 학생 대상으로 학교교육과정을 통한 다문화 이해교육 실시
  - ※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('17.12)으로 교원 대상 다문화 이해교육 필수 실시
- (탈북학생) 실질적 사회정착을 위해 직업교육 프로그램(한겨레고), 진로·직업캠프(전체 시·도) 운영을 지원하고, 맞춤형 교육\* 추진
  - \* 전문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심리상담 지원, 2년 이상 장기 멘토링 신규도입(20명)
- (농산어촌) 면·도서벽지 고교의 ICT 인프라 구축을 확대하고('17. 60교 → '18. 120교), 지역 학교의 지역사회 개방형 커리큘럼\* 운영 지원
  - \* 지역수요에 따른 생활밀착형 평생교육 실시('18. 총 15억, 교당 500만원 이하)

#### □ 대입제도 투명성 및 공공성 제고

- 학생부 종합전형 공정성 강화 방안 마련('18.하), 입학사정관 제척·회피를 법제화하고 입시·학사비리 대학은 재정지원 제한 강화('18.상)
- 소외계층에 대한 대입지원 강화를 위해 저소득층, 장애인, 농어촌 학생 등을 위한 기회균등선발 실시 의무화\* 및 확대\*\*
  - \* 「대입전형기본사항」 개정('18.8)으로 '21학년도부터 기회균형선발 실시 의무화
  - \*\* ('18학년도) 40,306명 → ('19학년도) 43,371명(대입전형시행계획 기준, 정원 내외)
- (법학전문대학원) 블라인드 면접, 지역인재 선발(선발인원 20%)을 의무화하고, 취약계층 선발 비율·범위 확대\*를 위한 법령\*\* 개정 추진
  - \* (비율) 5% → 7% 이상, (범위) 경제적·신체적 취약계층 → 사회적 취약계층 추가
  - \*\* 「법학전문대학원법 시행령(면접, 취약계층)」('18.상), 「지방대육성법(지역인재)」('18.)
- (의·약학계열) 지방대육성법 개정을 통해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화\* 하고, 지역인재 선발인원 중 저소득층 비율 할당을 의무화('18.상)
  - \* (기존) 의·약학계열 학부 30%, 전문대학원 20% 선발 권고 → (개정) 의무화(비율은 유지)



### 3.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겠습니다

#### □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·운영 지원

- 학교 안팎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수요자 중심 돌봄서비스를 확대하고, 중앙-지방-돌봄기관 간 연계·협력을 통해 돌봄 내실화 지원
- 중앙정부 위주 돌봄 서비스 추진방식을 지역사회 중심으로 전환하는 '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선도모델'을 발굴·확산

※ 관계부처 합동 「온종일 돌봄체계 구축·운영 기본계획」 수립 추진



- 돌봄전담사 교육 강화, 돌봄교실 서비스 적정기준 마련·적용, 시설 환경 개선 등을 통해 초등돌봄교실 서비스 질 제고 지원

#### □ 학생이 행복한 학습환경 마련

- 관련 부처·기관간의 유기적인 연계·협력을 통해 미취학·무단결석 등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학생에 대한 조기발견·보호체계 확립

- 교육청-지자체-경찰청 협업을 통한 미취학·무단결석 아동 합동점검 실시
- ※ 1단계) 예비소집~취학전 단계에 예비소집 미참여 아동 소재·안전 확인('18.1~2)
- 2단계) 입학일 이후 미취학·무단결석 아동 상시 점검·관리('18.3~)



- 관계부처가 협력하여 아동학대 의심 학생 점검·관리 시스템 구축
- ※ 무단결석 학생의 NEIS 학적정보를 전산화('18.2)하고, 이를 아동학대 위험군 판별을 위한 위기아동 조기발견 시스템('18.4 개통, 보건복지부)과 연계('18.12)

- **학교폭력 예방교육 내실화를 위해 국가수준의 예방교육 프로그램 활용을 확대\***하고, 학교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·보급\*\*

\* 모든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어울림프로그램(공감·소통·갈등해결 등 6개 역량에 대한 모듈식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) 활용 권장 : ('17) 1,505교 → ('18) 9,000교

\*\* ('18) '어울림심층프로그램(24종)' 및 '또래활동(3종)', '언어·사이버 폭력 예방(6종)

- **단순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장의 자율적 해결권한을 인정하고,** 학교폭력 사후 분쟁을 줄이기 위해 **학교폭력자치위원회 전문성 강화\*** 및 가해학생에 대한 **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방식 개선\*\***

\* 학부모 위원의 의무 확보 비율 축소(1/2 → 1/3)를 위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추진('18.)

\*\* 시·도교육청 의견을 수렴하여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 마련('18.상)

- 학교폭력 관련 **유형별, 대상별 맞춤형 원스톱정보제공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학교폭력예방홈페이지 '도란도란'을 이용자 중심으로 대폭 개편\***

\* (현행) 서비스 제공기관(시설) 기초정보 → (개편) 유형별, 대상별 맞춤형 서비스 정보

- **청소년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해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원역량을 강화**

※ 관계부처 합동 「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대책('17.12)」 세부계획 수립('18.2)

- 학교폭력 피·가해학생 및 위기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**전문 상담교사를 확대('18, 614명)하고 Wee센터 등 관련 지원기관 간 연계 강화**

\* 학생정신건강센터, 병원형 Wee 센터 등 관련기관 간 연계·협력모델 개발(∼'19)

## □ **취약·위기학생 조기진단 및 체계적 지원 기반 확충**

- **기존 조사\*** 간 연계를 강화하여 아동학대, 학교폭력, 자살 등 위기 징후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취약·위기학생 진단 시스템 마련('18)

\* 학교폭력실태조사,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, 학교단위 교사의 관찰 등

- **위기요인별(ADHD, 우울증 등) 효과적 진단과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\*** 추진('18 준비, '19~추진) 및 **종합적인 진단·지원체제 마련('20)**

\* 공모해서 희망한 지역(기초지자체-교육지원청 단위)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통해 취약 및 위기학생 판별과 학교적응 및 기초학력보장 등을 위한 지원시스템 구축

- 자살위험군 학생 밀착 관리를 위한 문자상담 체계를 구축\*하고  
전문가 학교방문 서비스 전국 확대\*\* 및 자살예방 우수사례 발굴·확산

\* ('18) 시스템·운영매뉴얼 개발 및 시범운영 → ('19) 운영체계 보완 및 확산

\*\* 정신건강 전문가 상담을 위한 권역별 관리팀 추가 설치 : ('17) 7팀 → ('18) 9팀

## □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시설·환경 조성

- 지진발생으로 인한 학교 피해 최소화를 위해 내진성능 조기 보강  
재원(매년 1천억 원 추가 확보) 확보\* 및 내진보강 기준\*\* 마련

\* 「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」 개정으로 재해대책수요 특별교부금을 재해예방에 사용('18~)

\*\* 「학교시설내진설계기준」 개정고시('18.1.1 시행), 내진보강 매뉴얼 개발('18.1)

- 지진위험지역\*은 당초계획보다 10년 단축('34→'24년까지), 그 외  
지역은 5년 단축('34→'29년까지)하여 내진보강 완료(국립학교는 '22년까지)

\* 지진위험지역 : 지진피해가 다수 발생한 경북, 경남, 대구, 울산, 부산 지역

- 쾌적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'학교 미세먼지 대책\*'을 마련('18.상)  
하고, 위험·위해시설(석면 등), 노후 시설·기자재\*\* 교체·개선

\* 실내체육시설, 공기정화장치 확충 및 교실 내 미세먼지 관리기준 강화 등

\*\* 화장실(2.7만㎡), 냉난방기(8천실), 칠판(4,277개), 책걸상(11만개), 이중창(1,020실) 등

-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유관기관 간 교통안전 협업 활성화

- 통학로 공사 시 지자체-학교 등 유관기관 간 '안전대책협의회'  
구성·운영 의무화('18)

- 통학버스 위치 및 승·하차 정보를 학부모·교사에게 실시간 제공하는  
'어린이 통학버스 위치알림 서비스' 단계적 확대\*(도로교통공단 등, '18~)

\* ('17.5~6월) 경기·경남(13개교) 시범사업 → ('18) 영남권 → ('19) 호남·제주권  
→ ('20) 강원·충청권 → ('21) 수도권 등 전국

- 체계적인 학교 안전관리 기반 조성을 위해 '5개년 교육시설 기본  
계획\*('18.상)' 및 '학교안전사고 예방 3개년 기본계획\*\*('18.하) 마련

\* 석면제거, 내진보강, 노후 냉난방기 교체 및 재난위험시설 해소 등 낡은 학교 개선 등

\*\* 학교 안팎의 안전사고 예방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, 교육활동 운영기본지침,  
학교 안전교육, 학교시설 안전점검 및 조치, 학교 안전문화 확산 등

- 교육환경 보호 강화를 위한 학교 주변 도박시설에 대한 합리적 규제방안 마련('18.하) 및 '제1차 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'('18~'22)' 추진
  - \* 관계부처 합동 유해시설 합동점검 실시(3월·9월), 교육환경보호 전문기관 기능 강화 등

## □ 안전 교육 및 학교 안전관리 강화

- 학교 내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안전체험시설을 확충\*하고, 교직원 안전역량 강화를 위한 표준연수 모델\*\* 개발·적용
  - 안전의식 조기 형성을 위해 유치원부터 안전교육 의무화('18. 연 51차시 이상)
    - \* 종합안전체험관(10→11개), 소규모안전체험관(9→11개), 교실형안전체험관(24→46개) 등
    - \*\* 학교급별·수준별·업무별로 체계화한 교직 생애 안전연수 모델 개발('18.상)
-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 기준·체계 구축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「교육시설기본법」 제정 추진
  - ※ 국가 차원의 학교시설 개선 종합계획 수립 및 교육시설 안전인증제 도입 등
- 교실 내 유해물질로부터 민감 계층인 어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유해물질(라돈, 포름알데히드 등) 점검 및 관리기준 강화\*
  - \* 「학교보건법」 하위법령 및 관련 매뉴얼 개정 추진('18. 상)

## □ 학교 감염병 등 관리역량 강화를 통한 학생건강 증진

- 학생 예방접종력\*에 대해 체계적으로 확인하고 감염병 대응훈련\*\* 정례화('18~, 연1회)를 통해 감염병 발생 사전 예방 및 확산방지
  - \* 만4~6세(초등학교 입학전) 및 만11~12세(초6~중1) 시기 실시하는 예방접종
  - \*\* 감염병 유행상황을 가정한 쏘 학교 참여 감염병 대응 모의훈련(교육청 단위)
- 학교급식 안전사고 예방관리를 강화\*하고, 영양관리 기준을 현 학생 영양·건강상태 및 성장발달단계를 반영하여 개선\*\*
  - \* 식중독 발생 원인분석을 통한 예방관리 및 급식소 화재예방 강화를 위한 매뉴얼 개정('18.하)
  - \*\* 「학교급식법 시행규칙(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)」 개정('18.하)

#### 4 국제사회와 재외국민 교육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

##### □ 국제사회에서 한국교육의 기여 확대

- 우수 한국교사의 개도국 진출사업\*을 통해 교류국의 기초교육역량 향상 및 교육 여건 개선 도모

\* '18년 230명 파견 예정, 현지학교에 배치되어 수업활동(전공과목·한국문화 등) 진행

- 정부초청장학생의 지방대 이공계 및 전문학사 등 선발인원 확대\*와 제도개선\*\*을 통해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

\* 지방대 이공계 배정 : ('17) 90명 → ('18) 100명 / 전문학사 배정: ('17) 17명 → ('18) 20명

\*\* 재외동포 및 사회·경제적 배려 대상자 우대 신설

- 국제협력선도대학을 통해 개발도상국내 학과 개설을 지원하고, BEAR I 프로젝트 성과 확산을 위해 후속지원사업(V-CODE)\* 및 BEAR II 추진

※ BEAR(Better Education for Africa's Rise) II : 아프리카 5개국에 5년간('16~'20) 노동시장분석, 직업교육과정 개발, 교사연수 등 지원

\* V-code(Vocational education-Competence Development) : BEAR I 지원국 대상 교과서 추가 개발보급 및 교사연수 실시

##### □ 재외교육기관 설립·운영을 통한 재외동포의 교육기회 확대

- 재외동포자녀 교육 내실화를 위해 한국학교 신설(中 웨이하이, '18.3 개교예정) 및 재외교육지원센터('18.상, 신규) 설립
- 국가별·지역별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확대 등 한국교육원의 기능을 강화하고, 현지 교육수요에 부응한 교육원 확대 추진

##### □ 해외 한국어 보급을 통한 교육 한류 강화

- 신규 지원 국가를 발굴하여 해외 현지 초·중등학교 내 한국어 정규 과목 채택 확대\* 및 대입시험에 한국어 개설 지원 ('18년 태국 반영)

\* ('17) 28개국 1,427개교 → ('18) 30개국 약 1,500개교

- 해외 한국어 학습 수요에 부응하여 질 높은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 지도록 한국어 교원 파견 국가 확대\* 및 연수프로그램 내실화

\* 파견국 : ('17) 2개국(태국, 우즈베크) → ('18) 3개국(태국, 우즈베크, 인니) 예정

## ① 지방교육자치를 내실화 하겠습니다

### □ 교육부-교육청-단위학교 간 합리적 권한 배분

- (자율성 강화) 법적 근거가 모호한 규제적 지침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학교 운영과 시·도교육청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제도 개선(~'18.6)

\* 단, 지진 등 재난대응 매뉴얼, 석면관리 매뉴얼 등 학생 건강·안전 관련 분야 제외

- 단위학교 자율성 강화를 위한 개선과제(3대 분야\*, 83개 과제)를 교육부·시·도교육청 공동으로 추진

\* ① 교육과정 및 활동, ② 학교 운영, ③ 시·도교육청 자율성

- (합리적 권한배분) 교육청 권한배분 내용 및 방식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 및 검토를 통해 법령 개정 방안 마련(~'18.6)

※ 국가교육회의, 교육자치정책협의회, 시도교육감협의회 등 논의(~'18.6)  
→ 방안 마련('18.6) → 입법 추진('18.10~)

### □ 지방교육행정기관 자율성 확대 및 역량강화 지원

- (인력 충원)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공무원을 충원하여 행정역량을 강화하고 운영 자율성 확대를 위한 세부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·개선

※ 교육현장 필요 인력 수요, 국정과제 소요인력 등을 검토하여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에 반영, 시·도는 총액인건비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인력 충원

- (재정 자율성 확대) 시·도교육청의 자율성을 저해하거나 재정과 연관성이 낮은 항목을 정비하는 등 보통교부금 교부기준을 간소화

※ 교육청 의견 수렴 등을 거쳐 「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·시행규칙」 개정('18.12)

- (평가 자율성 확대) 시·도교육청은 소관 사무에 대해 자체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 자체 정책 환류 기능 강화

- 교육부가 주관하는 평가는 국가사무와 국가시책사무에 한해 실시하도록 개선('18)

## □ 지역교육 혁신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력 강화

- 온종일 돌봄, 혁신학교, 고교학점제 등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지자체의 교육지원 체계를 효율화하는 (가칭)‘지역교육혁신 지원사업’ 추진(‘18~)
  - \* 지역사회의 풍부한 인적·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국민 생활에 밀접한 교육 서비스의 질을 높임으로써 교육 중심의 마을공동체를 실현
- ‘지역교육혁신협의회’를 신설(‘18.상)하여 사회부총리, 교육감 및 교육장, 자치단체장이 함께 지역교육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소통·협력창구 마련

## 2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교육정책의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

### □ 역사교과서 국정화 폐지 및 검정 역사교과서 개발 추진

-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의 후속조치로, 관련 학회 및 현장교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중·고교 역사·한국사 교육과정·집필기준 개정(~’18.2)
  - ※ 역사교과서 국정화사건 진상규명에 기초하여 재발방지 대책 등을 담은 백서 발간(‘18.상)
- 검정·심사 기준을 마련(‘18.3)하고 심사과정에서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\*하여 다양성이 보장되면서도 균형있고 수준 높은 교과서 개발
  - \* 검정심사 시 내용 및 표기·표현 오류를 심의하는 연구위원 확대



### □ 사학의 공공성 및 책무성 확보

- 사립대학에 대한 회계감리를 강화\*하고, 사학혁신위원회를 운영하여 사학제도개선 및 비리해결 관련 제안·제보를 발굴·심의
  - \* 감리학교 수를 20개에서 25개로 확대하고, 단계적으로 추가 확대(‘22년까지 60개교)함으로써 회계감리 점검주기 단축(15년 → 5년)



- 사학비리 당사자의 재진입 제한을 강화하고 비리연루자를 학교법인 운영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 시행령<sup>(18.상)</sup> 및 동 법<sup>(18.하)</sup> 개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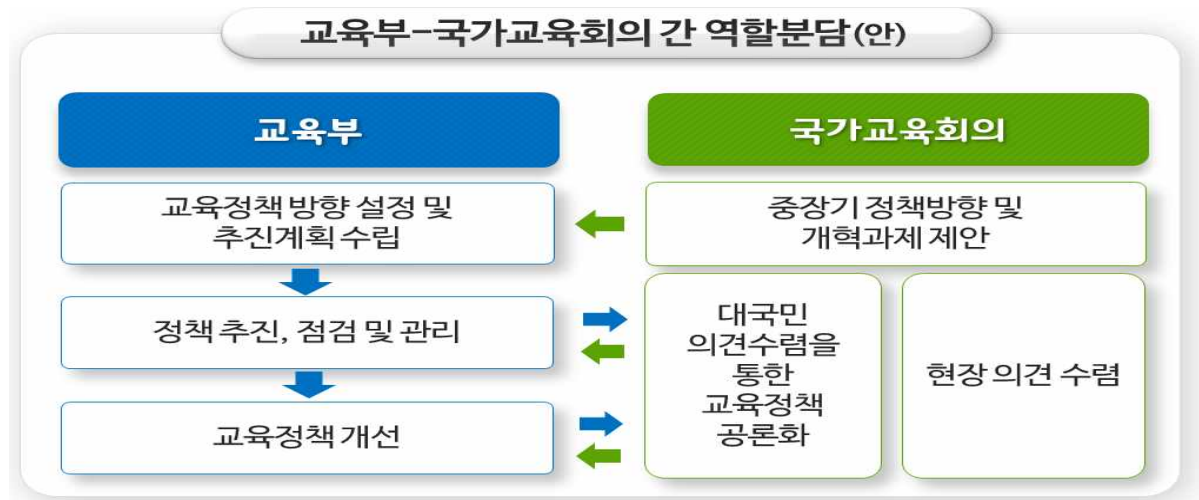
\* (사분위 정상화 심의원칙 법제화) 임시이사 선임 법인의 정상화시 종전이사 중 비리연루자의 이사추천권 배제를 의무화하고 해당 비리 유형을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 및 고시 제정

\*\* (임원의 결격사유 확대) 임원의 결격사유 기간 확대, 당연 해임 규정 신설 등 비리임원 선임 제한을 강화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 개정

### ③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거버넌스를 구축하겠습니다

#### □ 국가교육회의와의 협력체계 구축 및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지원

- 대국민 공론화를 통해 국민과 함께하는 정책추진을 위해 교육부-국가교육회의 간 상호보완적 협력체계 구축
- 정책입안과정 등 초기단계부터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공론화 과정이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



-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(18.상)를 실시하고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법령 제정 추진(18.하~)

#### □ 사회부총리 기능 활성화를 통한 정책연계·협력 강화

- 사회정책의 일관성 견지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해 국가차원의 사회 분야 중장기 비전 수립을 추진

※ 사회분야 비전제시 및 종합적 정책추진을 위해 사회전략회의(VIP 주재) 개최 검토

-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국정과제 및 혁신성장 관련 사회분야 중점과제 추진상황을 점검·관리하여 부처 간 연계·협력 강화
- 사회정책 조정기능 강화를 위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사회정책 자문위를 신설하고, 민관사회정책협력망 및 사회정책포럼 운영
  - 사회정책 관련 정책조정권한 부여 등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추진

---

#### **4 국민이 원하는 교육을 위해 현장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**

---

##### **□ 교육정책 수립·추진 시 국민과의 소통 강화**

- 국민들이 공감하고 국민의 눈높이와 함께하는 정책 추진을 위한 ‘국민참여 정책숙려제’ 도입
  - ※ 정책별 국민소통 계획 수립 → 국민의견 수렴 → 숙려기간 운영 → 정책결정·추진
- 대국민 온라인 소통 페이지인 ‘온-교육’을 통해 주요 정책 홍보
  - 특히 국민적 관심 높은 현안 및 정책에 대해서는 정보제공부터 토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원스톱 시스템 구축(‘18.상)
- 온-교육에 각종 제안 및 신고센터\*를 구현하고, 주요사업에 대한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폭넓게 국민의 의견 수렴
  - \* ‘공공기관 채용비리 제보’, ‘수능시험연기 고충처리센터’ 등

##### **□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교육정책정보 제공**

- 블로그 기자단(30명 규모)을 통한 현장 취재로 정책고객의 눈높이에 맞는 현장 소식 전달 및 카드뉴스·웹툰 등을 통한 주요 보도 재확산
- 수요자 만족도 및 시·도교육청의 요구를 반영한 교육부 기관지 (행복한 교육) 발행으로 독자들이 원하는 흥미로운 콘텐츠 제작·제공

교육 정책이 변화합니다.

국민의 삶이 달라집니다.

유아  
교육

① 국공립유치원을 확대하겠습니다.

- 초등학교의 빈 교실을 활용하여 병설유치원을 확대하고, 신도시 등 인구유입지역은 개발계획 수립 단계부터 공립유치원을 확충합니다.

② 교육비 걱정 없는 유아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.

- 저소득층 자녀가 국·공립유치원에 입학할 수 있는 우선권을 확대하겠습니다.  
(우선권 부여 : '17. 3개 교육청 → '18. 전국확대)

① 보다 낮은 부담으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.

② 저소득층의 국·공립유치원 입학기회가 확대됩니다.

초·중·고  
교육

① 실질적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1인당 교육급여 지원을 확대 하겠습니다.

- 초등학교 ('17) 41,200 → ('18) 116,000원  
중학생 ('17) 95,300 → ('18) 162,000원  
고등학교 ('17) 1,524,200 → ('18) 1,592,400원

② 학생의 학습 선택권을 확대 하겠습니다.

-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자유학년제로 확대됩니다.
- '22년까지 고교학점제 도입을 목표로 연구·선도학교 105개를 운영합니다.

③ 새 교육과정이 적용됩니다.

- 2015개정 교육과정이 본격적으로 적용됩니다.

④ 학교 내진보강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.

- 재해대책수요 특별교부금을 재예방 용도로 활용하여 학교 내진보강에 매년 1천억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.

⑤ 특수교육대상자 교육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.

- 특수학교 3교, 특수학급 250개, 특수교육교원이 1,173명 늘어납니다.

① 초등학생은 학용품비 5만원을 새롭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
- 중·고등학생 부교재비 지원\*이 63,800원 증가합니다.

\* ('17) 41,200원 → ('18) 105,000원

②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고민하고 이에 따라 스스로 교육과정을 설계해 나가게 됩니다.

③ 고등학생이 문·이과 통합교육을 받게 되고, 다양한 선택과목을 이수할 수 있게 됩니다.

④ 우리 아이들이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학교에서 교육 받게 됩니다.

⑤ 특수교육대상자가 더 가까운 곳에서 더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## 교육 정책이 변화합니다.

## 국민의 삶이 달라집니다.

### 고교 교육

- ① **대입제도를 개편 하겠습니다.**
  - 대입전형이 수능, 학생부 전형을 중심으로 단순화되고, 대입 사전예고제가 법제화됩니다.
- ② **대학 입학에 드는 비용을 절감하겠습니다.**
  - 국립대학 입학금을 전면 폐지하고, 사립대학 입학금은 '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합니다.
  - 대입전형료 인하를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합니다.
- ③ **국가 장학금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.**
  - 등록금의 절반 이상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이 중위소득 90%에서 120%까지 확대됩니다.
- ④ **소외계층 균형선발을 의무화 하겠습니다.**
  - 「대입전형기본사항」을 개정하여 '21년부터 기회균형선발을 의무화하고, '19년 대입에서도 기회균형 선발인원을 확대하겠습니다.
- ⑤ **대학생 주거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.**
  - '22년까지 대학생 3만명이 추가로 입주할 수 있도록 기숙사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.

- ① 대입전형에 대해 미리 알고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.
- ② 국립대 (평균 149,500원)와 사립대 (평균 773,500원)의 입학금이 폐지됩니다.
- ③ 등록금의 절반 이상 지원받는 학생이 약 87,000명 늘어납니다.
- ④ 저소득층, 장애인, 농어촌 학생 등 소외계층의 교육 기회가 확대됩니다.
- ⑤ '18년에는 대학생 약 9,200명이 추가로 기숙사에 입주하게 됩니다.

### 평생 · 직업 교육

- ① **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바우처를 도입하겠습니다.**
- ② **한국형 나노디그리를 도입하겠습니다.**
  - 해당분야 대표기업과 연계하여 직무능력을 평가인증하는 온라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.
- ③ **대학의 평생교육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.**
  - 온라인교육·학습경험인증제를 확대하는 등 대학의 학사제도를 성인학습자 친화적으로 바꾸겠습니다.
- ④ **현장중심의 안전한 직업교육을 제공합니다.**
  - 조기취업 형태의 현장실습을 폐지하고, 취업의 준비과정으로 현장실습 교육을 운영합니다.
- ⑤ **대학창업펀드 운용 규모를 확대합니다.**
  - 대학창업펀드 규모 : ('17) 120억 → ('18) 150억

- ① 저소득층 성인학습자는 1인당 최대 35만원의 평생교육 바우처를 지원받게 됩니다.  
※ 5,000명 내외
- ② 학생·직장인들이 단기 온라인 교육을 통해 직무에 필요한 역량을 개발할 수 있게 됩니다.
- ③ 일반대학에서도 기업 재직경력 등이 학점으로 인정받게 됩니다.
- ④ 현장실습에 나간 학생은 학생신분으로 전담지도사의 지도 하에 실습을 받게 됩니다.
- ⑤ 더 많은 학생들이 창업 초기비용을 투자받을 수 있습니다.